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사랑의 기도 편지

<성서 건강학> 이후 비교적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국민일보에서 칼럼 연재의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집필을 시작한 것이 <사랑의 치유 일지>였다. 이 글이 연재되는 동안 독자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는데 6 개월 동안 연재되다가 신문사의 체제 개편으로 중단되어 독자들과의 교류가 끊어지게 되었다. 무척 마음이 아팠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직접 편지 사역을 시작하고픈 열망이 생겼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랑의 기도 편지'였다. 매달 1 회씩 2,000 여 명의 후원자와 독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현재는 21 호에 이르고 있다. 가끔 독자들로부터 답장을 받을 때마다 이 사역이 얼마나 보람 있는 사역인지를 깨달으며 잔잔한 은혜에 젖는다. 편지 사역을 통해 인격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이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주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좌절감은 크리스천의 가장 큰 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법이 없고 사랑의 동기 외에 어떤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하신다.

사랑의 기도 편지 제 1 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 133 편)

지난 해 국민일보에 <사랑의 치유 일지>를 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 개월 정도 글을 썼던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한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자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애독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번 금요일에 연재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며 마음을 졸일 때가 있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신문사의 사정으로 글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때 '애독해 주셨던 분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다가, 이제는 강한 도전과 절박한 열망을 주셔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올해로 중생한 지 꼭 20 년이 되었는데 지난 18 년 동안의 은혜보다 최근 2 년 동안에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해 제가 '사랑의 클리닉'을 시작한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주님을 위해 산다'며 많은 일을 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2 개월 동안 받은 은혜가 지난 2 년 동안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봉사단 사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체험하면서부터이었습니다.

요즈음은 QT 를 하거나 설교 메시지 및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스스로 감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고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매력 있는 삶인가'를 가슴 저리도록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과 더불어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열망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한 달에 두 번 편지를 보내도록 하되 사정이 허락되면 매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랑의 치유 일지>를 같이 동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1996년 3월 9일 진리재에서

사랑의 기도 편지 제 5호

- 중보 기도로 이루어진 사랑의 편지 -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19, 22~23)

어제는 사랑의 봉사단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있는 기도회지만 그때마다 새롭고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도 무척 좋았지만 어제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모임과 교제, 찬양과 간증은 물론이요 메시지와 듀엣 JJ 의 특송도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기도 모임도 다 좋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의 테레사로 불리는 조성덕 선교사님의 사역보고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100% 모슬렘 국가, 크리스천이 20 명밖에 안 되는 불모의 땅, 그 중 5 명이 순교하여 현재 크리스천은 15 명밖에 없다는 소말리아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봉사단'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말씀하실 때는 가슴 벅차오는 감격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료 봉사도 봉사지만 수백 명의 어린이들의 손톱, 발톱을 깎아주는 어린이 사역의 영향력과 내전으로 인해 모든 사역이 무너질 뻔한 상황에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사역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 그 흘린 땀의 열매에 대해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실무 책임자로서 잔잔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전인 치유 학교의 강의 준비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돈과의 관계' '성과의 관계' '권력과의 관계' '가정 회복' '자녀 교육' '세계사의 흐름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것으로 실제적인 적용 문제가 많았기에 책과의 전쟁을 치루며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덕분에 나름대로 바른 영성에 기초한 성경적인 체계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역시 공부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인 치유 학교를 통한 전인 치유 사역이 한국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의료 선교 센터 출범 한 달 만에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기금을 위해 헌신적으로 평생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 선교사를 위한 평생 검진 비용을 기부해 오신 분들, 무엇보다 이 사역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화가 목사님이 이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생 동역을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열일곱 번의 작품전 에서 거기서 생긴 20 억에 가까운 수익금을 모두 현금하셨습니다. 당신은 지하실 방에 전세로 살면서도 일 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작품전을 열어 전적으로 이 사역을 후원하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금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되 금년 안에 일백 가족 회원과 일천 교회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의미가 있지 시간을 끌게 되면 세계 의료 선교 센터의 중장기 계획에 모두 차질을 빚게 되고 모든 사역이 흔들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 오히려 영적 위기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주님의 일인데 제가 짐을 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SBS-TV 의 <암과의 전쟁> 프로에 제가 출연해서 면역 요법을 소개한 이후 암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 병원을 찾는 200 여 명의 암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싶어 전도하고 기도해 주곤 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월과 8 월에는 사랑의 봉사단(7 월 13~30 일 : 인도, 아프리카)과 꿈나무 해외 봉사대(8 월 5~17 일 : 필리핀, 태국, 인도, 네팔)의 출진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에 맞추어 제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단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과 청년 대학생, 주부, 교사, 특히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달 중순(7 월 팀)과 이달 말(8 월 팀)까지 마감되는 단원 모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편지는 한 달에 두 번 보내는 것인데 한 번을 보내드리지 못해 글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늘 편지를 보내는데 답장을 받지 못해 이 편지가 제대로 읽혀지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엽서라도 좋으니 답장과 더불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년 6 월 황성주 올림

망하기로 결단하라!

비행기에서 주신 아이디어

'세계 의료 선교 센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계 선교를 위한 의료 지원 센터'라고 해야 옳다. 이 비전은 병원의 존재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창기, 병원의 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갔다. 사실 의사라는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대출 받았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다.

이러한 재무 구조에서는 병원의 성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게다가 적자 해소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나는 심한 고민으로 분별력이 흐려진 탓인지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제의 권유에 따라 상당한 투자를 하여 혈액 검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다른 병원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다 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했을 때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나는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긴 했으나 그때 주님이 주신 교훈은 너무도 단호했다.

사랑의 클리닉은 다른 많은 병원들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요구하시는 듯 했다. 물론 사회의 구조적 왜곡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 순수성을 회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왜곡된 방향을 새롭게 바꾸기를 바라게 계셨다.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진적으로 법적·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순수성을 요구하신다.

'찰벼 논에 물을 대고자 할 때는 하얀 돌맹이에서 뽑아낸 맑은 물을 대라'는 고어처럼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먼저 깨끗해 져야 한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순결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해서 세상 물정도 모른 채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왜곡된 구조와 복잡성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을 뚫고 승화된 순결이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처럼 순결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없이 순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천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병든 세상에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10 배의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1994년 12월이었다. 업인 데 덮친 격으로 벼랑 끝으로 가던 병원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재정적 회복을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몰리게 되고, 추가 도입한 의료 장비들로 적자는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던 중에 인도의 백종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 1회 전 인도 한인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와달라는 강력한 초청을 받게 되었다. 일주일 정도의 일정이 요구되었는데 정말 고민이 안 될 수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까지 병원을 비우면 재정 압박은 물론 동역자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 속에서는 자꾸만 '가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선교사로 세계엔 못 갈지언정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못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아내와 같이 인도로 출국했다.

뭄바이 근교의 한 호텔을 빌려 2 박 3 일 동안 진행된 제 1 회 전 인도 한인 선교사 대회에는 80 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 정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사귀게 되어 이후 사랑의 봉사단을 인도의 어느 지역에 보내도 될 정도로 훌륭한 협력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실제로 인도에 사랑의 봉사단을 파견했던 지역만 해도 뭄바이, 뉴델리, 캘커타, 하이드라바드, 마드라스, 방갈로, 오리싸 등 일곱 지역이었고, 선교사 대회를 기점으로 인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불붙게 되었다.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다시 병원의 장래에 대해 더욱 간절한 간구를 드리면서 많은 상념 속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다 생각난 아이디어가 '선교사 가족과 목회자 부부들을 위해 종합 검진을 50% 할인해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이왕 망할 바에는 좋은 일이나 실컷 해보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돌아오자마자 그 검진 제도를 국민일보에 광고로 실었다.

광고를 낸 그날부터 전국에서 목사님들의 검진 예약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시골에서 평생 한번도 종합 검진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루에 7~8 명 하던 검진을 20 여 명까지 하게 되었고 사랑의 클리닉은 크리스천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때를 같이 하여 내가 그동안 해오던 항암 면역 요법이 신문과 잡지 등에 소개되면서 암 환자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후 사랑의 클리닉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국 10 개월 동안 누적되었던 적자가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3~4 달 만에 거의 회복되었고 병원 경영도 호전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그것이 믿음만이 아니라 생활과 경제 논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성경의 원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경제 논리란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좋은 이미지와 장기적인 영향력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은 경제적 영역에서도 우리가 치유 받기를 원하시고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진정한 소유자 및 정복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데 병원을 시작하고 2 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세금 문제였다. 첫 해는 적자 신고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해부터는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의 불안정한 재무구조에 있었다.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채나 은행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 부담이 대단했다. 대부분의 의료 장비도 리스였기 때문에 한 달의 리스료도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지출이 되면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100% 정직하게 매출을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흑자가 아닌데도 세무 회계상으로는 상당한 흑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적자를 보고도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일이나 병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병원 경영에 몰두한다면 몰라도 국내외 집회와 세미나, 전인 치유 학교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고 사랑의 봉사단 활동도 만만치가 않았다.

더욱이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사랑의 봉사단을 파송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듯했으니 그 부담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세계 의료 선교 센터였고 이를 계기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의 동역을 이루게 되었다.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

의료의 질과 검진 능력

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점점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설교도 좋아하고 강의도 좋아한다. 선교와 구제와 봉사로 전 세계를 다니는 보헤미안의 기질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환자를 보는 책임감과 보람과 기쁨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랑의 클리닉을 성장시키는 비결은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영성이 높으면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있으면 영성이 빈약한 것이 크리스천 사역의 취약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추어야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견고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다.

의사의 사명이 치료라는 사고방식은 19 세기 이전 시대의 전유물이다.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이 의학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한번은 석 달이 되었는데도 감기가 낫지 않는다고 찾아온 50 대 남자분이 있었다.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애스던 딸이 동행한 지라 기억에 오래 남았던 환자였다. 그런데 X-ray 를 찍어보니 폐암 말기였다. 최근에 한번이라도 X-ray 를 찍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5 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미리 예방만 하였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병을 가래로 막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한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 어느 목회자 부부가 다짜고짜로 내 방에 들어오는데 두 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그 목사님은 500 명 정도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신학교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였다.

지난주에 그동안 해오던 교회 건축을 마치고 헌당 예배를 드린 뒤 그 기념으로 부부가 몇 년 만에 종합 검진을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려 하였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반면에 예방 검진을 통해 조기 위암, 조기 유방암, 조기 뇌암, 조기 대장암 등을 발견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보람과 기쁨의 사례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왜 자동차는 정기 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몸은 검진받기를 싫어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 미리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예방적 삶을 살라.

내가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랑의 클리닉 종합 검진 센터의 검진 능력이다. 우선 대학병원 못지않은 최신 설비와 의료장비를 통한 각종 검사의 정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빠른 의사 결정 과정, 단순한 의학적 접근 외에 생활양식과 스트레스, 심리 상태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이 바로 우리 병원의 자랑이다.

1 년에 300~400 명의 선교사님들과 1,000 여 명의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을 검진하는 우리 병원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세 못지않게 시설이나 검진 능력에 있어서도 최고급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크리스천이 하는 것은 다 어설프고 적당히 은혜로 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한번은 모든 선교사에 대해 무료로 종합 검진을 해 주자는 의견으로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이 들어왔다.

"저희 교회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귀국하시면 그때마다 종합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액을 다 부담하여 검진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랑의 클리닉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클리닉에서 종합 검진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지 진료비의 50%를 할인 받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할 뿐더러 검진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진료를 한다고 하여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만큼 받더라도 최상의 수준의 검진을 해 주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였고 그대로 병원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제는 영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사역의 성취도와 더불어 사역의 질을 중요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세계 선교를 위한 의료 지원 센터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母) 병원이 될 사랑의 클리닉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과 전인 치유적 인격 의학의 모델 병원으로서 사랑의 암 센터를 개설해 암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급박한 일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10 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의 의원급에서 검진 센터와 암치료 재활 센터, 일반 환자를 위한 외래 진료실의 공간이 각각 분리된 최소한의 병원 규모를 구상하며 기도해왔다. 아직 그 기금은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최근 확장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론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나는 '왜 주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계실까?' 하며 답답해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는 잠언 19:21 의 말씀이었다.

꿈이 당장 이루어지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비전의 점검, 동역자의 확보, 경영 능력의 재고,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크고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더 성장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더딘 만큼 더 견고하게 간다는 확고한 방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진리가 뼈에 사무치게 하라!

말씀 강해 사역

말씀 사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은 당시 IVF 의 총무였던 박영덕 목사님 덕분이었다. 사랑의 봉사단 스태프 수양회의 강사로 평소에 사모하던 박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분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동안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지만 그런 아류의 인스턴트

영양분과는 질이 달랐다. 몇 시간 동안의 성경 강해가 사람을 그토록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부딪혀서 은혜로 충만해진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말씀 사역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

당시 박 목사님의 체험담 중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멋있는 설교도 많이 하고 구호도 외치고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더군요. 그런데 그 효과가 별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도 시행해 보았고 하나가 되자고 열심히 외쳐도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다음부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절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흠여지라고 해도 열심히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말씀 사역의 위대한 권능을 드러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 이후 나 역시 전인 치유 세미나를 말씀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고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 주로 에베소서 강해와 시편 23 편 강해가 주축을 이루고 필요에 따라 빌립보서 강해, 로마서 강해, 사도행전 강해, 디모데후서 강해, 야고보서 강해를 하며 말씀 속에 드러난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역설하게 되었다. 전인 치유 세미나만 할 때는 가끔 지칠 때가 있었지만 말씀과 더불어 메시지를 하면 할 때마다 힘이 난다.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곤 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나는 틈만 나면 외친다. "성경은 단순한 신앙생활의 표준만이 아니다. 성경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학문, 과학, 예술, 자녀 교육, 부부 생활, 건강 생활, 직장 생활 등 전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 진리이다. 전 인격과 전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말씀을 바로 알면 내가 바뀌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의 대가가 되라. 진리의 말씀이 뼈에 사무치게 하라."

가라, 세계로!

국제 사랑의 봉사단

나는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하면서 매일같이 한국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도한다. 대학 시절 막연하게 한국에서 세계로 가는 선교, 즉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의 주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월드 비전의 확인을 위해 한국 주도의 세계적인 운동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런 중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평소 알고 지내던 백종운 선교사님께서 사랑의 봉사단을 외무부에 법인으로 등록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네팔 호산나 재단과 사랑의 봉사단과의 연관성을 맺고 싶은데 사랑의 봉사단이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의외로 쉽게 진행되어 6 개월도 안되어 사랑의 봉사단의 외무부 법인은 쉽게 이루어졌다. 문화 협력 국장이신 분이 네팔에서 대사로 계시던 분이었고 백 선교사님의 소개로 사랑의 봉사단의 신뢰성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법인등록차 나를 만나서는 우리 단체의 이사장이신 김진홍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뵙게 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노르웨이에서 근무할 때 대사관에서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으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된 사랑의 봉사단은 1997년 7월 31일자로 외무부 등록 사단법인인 '국제 사랑의 봉사단(Loving Concern International)'이 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나는 국제 봉사 단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 받는 세계의 이웃들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체계가 이토록 빠른 시간에 갖추어진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봄 미국과 캐나다 집회차 미국 LA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학창 시절 서울대 복음화의 열기를 같이 내뿜었던 조남훈 형제가 마침 풀러신학 대학원 박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조 형제는 학창 시절 CCC 전국 총순장을 역임했던 경력도 경력이라니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형제들과의 뛰어난 친화력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였다.

그동안 근무하던 모 재벌 그룹의 최고 대우를 뿌리치고 신학의 길로 접어든 형제는 한의과대학을 다니는 그의 부인과 함께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을 불태우고 있었다.

사랑의 봉사단의 동역자를 찾고 있던 나는 이들 부부와 함께 로ndon도 비치에 거닐며 은근히 미국에서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OK'라고 대답하였다. 그들 부부는 매달 전해지는 나의 '사랑의 기도 편지'를 통해 동일한 비전을 열망해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동역을 요청하여 사랑의 봉사단 파송을 간절히 사모해 왔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국에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하여 중남미 지역은 미국에서 파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신 것이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사역은 곧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비전 메이커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라는 확신이 든다. 하나의 만남을 통해 미국 사랑의 봉사단이 탄생하게 되었고 바야흐로 세계화 전략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인도 뭍바이의 백종태 선교사님은 사랑의 봉사단의 서남아시아 책임자이자 비즈니스 선교를 시도하고 계시는 동역자이다. 나는 그분의 깨끗함과 진지함과 순수한 열정을 사랑한다. 뭍바이의 슬럼가에서 처음 사랑의 봉사단이 사역을 시작할 때나, 제 1회 인도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갔을 때나 그분이 보여주신 빈틈없는 행정 능력과 깨끗한 뒷마무리는 나에게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고대 문화사를 공부하러 갔다가 10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을 뵈 때마다 존경심이 앞선다. 그분을 통해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례들을 지켜보며 '깨끗한 그릇을 즐겨 쓰신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성을 확인하곤 한다. 그분은 현재 인도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사랑의 봉사단을 계획 중이다.

필리핀과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프랑스에서도 사랑의 봉사단 운동의 싹이 자라고 있는데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 중이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사랑의 봉사단 찬양팀인 샬롬팀은 아프리카의 경배와 찬양의 붐을 일으킬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사랑의 봉사단과 더불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에티오피아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꿈의 씨앗을 파보지 말라!

호도애 인터내셔널 미션

1997년 6월 소말리아에 갔을 때의 일이다. ECHO라는 유럽의 구호 단체가 운영하는 경비행기를 얻어 타고 나이로비 공항을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모가디슈 부근 바닷가에 있는 임시 활주소에 첫발을 내딛었다. 기름통을 대놓고 모터를 돌려 비행기에 기름을 넣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웠지만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총을 들고 경호를 해야만 하는 이 나라의 무질서와 절박한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의 녹슨 강철 집들과 광활한 사막은 자극과 함께 도전의식을 느끼게 했다. 그 광경은 주변 인도양의 청아한 푸르름과 북아프리카의 하늘에 드리워진 숨 막히는 뜨거움과 함께 삼색의 띠를 형성하며 맹위를 떨치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모가디슈 시내 곳곳의 무너진 건물들과 포탄·총알자국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리 전체는 이곳 족벌싸움의 참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어느 부잣집 옥상에 자리를 잡고 식사 대접을 받았다. 근처 고아원 아이들의 야유 소리에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이웃집 아이들의 따스한 미소와 친절함 손짓에 마음이 풀리기도 했다.

식사 후 다시 주인집 승용차를 탔는데 기사 옆 좌석과 양쪽 옆에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세 사람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했다. 주변 천막촌의 비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거리마다 할 일 없이 웅기증기 모여 있는 아이들, 청년들, 여인네들의 눈빛은 죽어있었으며 총상을 입은 백색건물은 더 창백해 보였다.

나는 전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고통스런 상황에 직면할수록 오히려 꿈과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에 의해 생동감이 넘치는 체질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첫 라운드부터 KO 펀치를 맞은 것이다.

우리 일행이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이미 철수해버린 한국 대사관의 서기관이 살았던 집으로, 우리를 대접했던 사람이 그 집의 소유주였다. 우리는 집안으로 들어가 몇 년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기도의 안식처를 마련했다.

동행했던 조성덕 선교사님과 주은영 간사의 마음은 읽을 길이 없지만 내 마음은 거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썩은 매트리스 위에 침낭을 깔았는데 붉은 개미떼들이 온통 방 안을 점령하고 있는 데다 모기들의 기습도 만만치 않았다. 집 뒤편에는 총을 든 보디가드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 간간히 총소리가 들려오는 저녁 무렵, 편안함을 포기했을 때 찾아오는 그 평강과 기쁨이란 ...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 남은 십 여 명의 크리스천이 전쟁통에 총살당해 이제는 한 명도 없는 100%의 모슬렘 국가, 수십 만 명이 기아와 전쟁으로 희생되는 아프리카 최대의 비극을 산출한 종족간의 전쟁을 말리다 못해 UN까지도 두 손 들고 철수해버린 나라. 아! 소말리아!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잔잔한 음성. '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는지 아느냐? 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라!' 주님이 성경에서 명하신 세계 복음화의 특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30여 개국을 다니며 느끼고 깨닫고 열망했던 선교 전략들이 수많은 연결 고리가 되어 하나로 꿰어지는 듯 했으며 앞으로의 사역 원칙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호도애 인터내셔널 미션(HIM)은 이날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HIM은 총체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마침내 불은 붙었고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다만 앞으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느냐가 과제인 것이다.

같이 동행중인 주 간사는 이 땅에서 상고해보니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럽다고 했다. '어떻게 딱 세 명의 크리스천이 100% 모슬렘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말을 잃고 말았다. 이처럼 극적인 대조, 절묘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은혜라는 말이 이처럼 실감나는 상황이 또 있을까?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감격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비전을 확인케 하신 주님을 찬송할 뿐이다. 호도애 인터내셔널 미션(HIM)의 세계 전략이 마음에 그려지는 순간, 그동안 천금같은 무게로 나를 짓눌러 왔던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담감이 반감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나는 비로소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 주님이 월드 비전을 허락하신 것은 만 20년 전 관악 캠퍼스 시절이다. 호도애라는 명칭도 그때 주셨다. 그런데 2,000년을 불과 2년 6개월 앞둔 이 시점, 즉 세계사가 굴절되는 이 순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원칙에 따라 실제로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땅인 소말리아에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동안 땅에 심어 놓았던 비전의 씨앗이 급게 발아하여 이제 싹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당시 내가 애독했던 캐더린 마샬의 책에서 본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심어라. 꿈의 씨앗을 심고 나서는 싹이 날 때까지 결코 땅을 파보지 마라."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 시킨다는 결의와 함께 무지갯빛 미래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조 선교사님은 저녁을 준비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고, 주 간사님은 그 집을 지키는 경비원의 부인과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19세기 말 미국을 뒤흔들었던 SVM(학생 자원 운동)의 슬로건은 '이 세대가 가기 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이었다고 한다. 그 운동에 의해 복음을 받았던 최대의 수혜국은 한국이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너무도 자명하게 드러났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와 서바나로 가기를 열망했는가.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심장부였고 서바나는 땅 끝이라는 세계관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겠다는 불타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지상 명령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오직 'Yes'만 있을 따름이다.

내가 어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에 미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겠는가. 소말리아 땅에서 주님이 주신 확신과 은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 청지기로서의 책임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까지만, 앞에 서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외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비전이다. 말씀을 통해 꿈을 꾸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라!(Dream it! Believe it! And just do it!). 행동하는 자만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Here and Now) 그 행동을 결단하라."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 김춘근 박사

나는 그분의 헌신과 열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지난여름 몬테레이 한인교회 집회를 위해 미국에 갔다가 만나 뵈었던 김 박사님은 2 만 평이나 되는 칼 스테이트 몬테레이 캠퍼스만큼이나 광활한 비전을 가진 분이셨다.

그는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프로젝트인 JAMA 운동을 주도하는 현직 대학 교수이다. 그는 믿음의 거인일 뿐 아니라 사랑의 거인이기도 하다. 그분 이외에도 내가 만나 본 JAMA 운동의 지도자들 모두는 영적 거인들이었다. 그분은 또한 대화 중에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는 아내를 포용하며 "That's me! What can I do.(그게 나잖아! 그러나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분위기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포근함과 겸손함도 소유하고 계셨다.

그분을 만난 후에 나는, 미국 사랑의 봉사단이 JAMA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분 또한 내가 평소에 기도해 오던 호도애 인터내셔널 미션(HIM)의 'Christian Leadership International'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 인 동역을 약속해 주셨다.

CLI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기 세대에 자기 민족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심어주고 총체적인 리더십을 키워주며 그들의 모든 사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프로젝트이다.

미국 방문 중 내가 JAMA 운동을 처음 대하면서 쓰게 된 <뉴 아메리칸 드림과 성경적 월드 비전>이라는 글을 소개한다.

뉴 아메리칸 드림과 성경적 월드 비전

두 번째 미국행이었다. 온 세계가 경제적 불황의 몸살을 앓고 있는 판에 유독 혼자만 호황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나라! 반만 년 유구한 역사의 극동 아시아 한 귀퉁이에서 자란 순례자에게 신대륙은 역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역사의 몸체에 비하면 불과 한 뼘에 불과한 이백 년 남짓의 초라한 역사를 가진, 이 대륙의 거대한 잠재력과 넘치는 생동감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신천지를 탐방하는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엄청난 저력은 무엇일까. 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열망하며 이 땅으로 몰려드는가.

도착 셋째 날 LA 금란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자마자 나는 조남훈 형제와 함께 라스베가스로 향했다. 세계의 방무대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쾌락 문화의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곳. 사실 미국 문화의 또 다른 단면을 맛본다는 설렘과 호기심이 있었다.

샌 버나디도를 지나 캘리포니아 주 경계선에서 네바다 주로 이어지는, 가도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달렸다. 아리조나와 유타와 텍사스까지 연결된 이 사막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품고 있기도 하고, 그랜드 캐년이나 글렌 캐년 등의 장엄한 모습으로 둔갑하기도 하며, 록키산맥이나 시에라네바다 산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무리 달려도 오직 모래와 파란 하늘과 고속도로만이 보일 뿐.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고 앞 차의 불빛과 가로등을 길잡이 삼아 달리는데 사막 한 가운데에 거대한 불야성이 보였다. 꼭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았고 호텔과 도박장으로 구성된 빌딩 숲에 거리마다 자동차로 메워진 곳이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호텔이라는 MGM 그랜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3,000 개의 객실이 콕콕 들어차는 곳. Check-In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 1 층 현관에 수백 개의 슬롯머신과 수십 개의 카지노가 개방되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런 대규모의 호텔이 수십 개에 달한다.

사막에 도시가 세워진 것도 기적인데 더구나 사시사철 사람으로 들끓는 것도 미국 정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슬롯머신을 붙들고 새벽까지 씨름하는 곳. 돈이라는 맘몬신의 거대한 흡입력을 증명하는 곳. 도박과 환락에 취해 아무리 밤을 지새도 잠이 안 오는 곳.

상상을 초월한 아이디어에 엄청난 투자로 성공을 거둔 곳. 사막 한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서 있는 신기루. 그냥 지켜볼 뿐이다.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하룻밤의 쾌락과 벼락부자의 꿈을 가지고 몰려드는 곳. 제 2 의 서부 개척이며 제 2 의 골드러시를 이루는 곳. 사실 할리우드와 라스베가스는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이자 자본주의 체제의 탐탁치 않은 부산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방향이 틀어지긴 했지만 미국은 꿈의 나라라는 사실이다. 내용이야 어쨌든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곳, 빛나간 열정이긴 하지만 뜨거운 열정의 나라로서 최소한 미지근한 나라는 아니다. 유럽의 합리성에 아프리카의 역동성, 요즈음은 남미의 정열에다 동아시아의 교육열까지 합쳐놓은 듯한 모자이크의 나라.

풍요의 미학에다 스케일까지 갖춘 미국 내셔널리즘, 여기에 편승한 코카콜라, 맥도날드, 말보로, 마이크로 소프트의 상흔과 할리우드의 문화가 '시장 개방'이나 '자유 경제' '인권' '환경' 등을 무기로 삼아 세계를 주눅 들게 한다. 급변하는 세계 문명의 대양에 넘실거리는 크고 작은 파도를 넘어 미국호의 화려한 질주는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속으로는 총체적으로 병들었고 치유 받아야 할 엄청난 상처와 영적.정신공백이 있다. 의식 있는 크리스천들은 미국에 도덕적 가을, 영적 겨울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다. AIDS 와 마약과 마피아와 미혼모와 이혼과 청소년 범죄로 상징되는 나라.

제 3 세계에서 미국은 제국주의의 원조라는 불명예에다 세계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슬픈 사실을 어찌할 것인가. 영적 지도자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죄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통탄하며 이미 미국은 영성을 상실한 국가, 혼이 없는 나라라고 규정짓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 미국인들이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도덕성과 자부심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님으로 기초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이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나라. 세계에서 중생한 크리스천이 가장 많은 나라. 전 세계 선교사의 70%를 공급하는 나라.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로 무기 없이 세계를 석권한 나라. 세계의 중심 국가이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피스 메이커(peace maker)를 자처하는 경찰국가.

한 해 동안에 6,000 억 불을 수출하고 7,200 억 불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 공산권의 붕괴로 이제는 경쟁국이 없어진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전 세계 정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정보 통신 대국.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을 배출한 과학 대국이며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는 나라.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 대국이자 자원 대국.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킬 정도로 정신적 역량과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시킬 수 있는 나라. NBA 와 미식축구와 프로 야구로 전 세계의 젊은이를 흥분시키는 나라. 빌 게이츠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 기업의 창조적 경영 혁신과 리엔지니어링을 성공시켜 세계(특히 일본)와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의 흐름을 다시 옮겨온 나라.

50 개의 주가 각각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합중국으로 뿔뿔 뿔칠 수 있는 나라. 질서가 없는 것 같은 자유의 천국이면서도 확고한 애국심으로 위기 때마다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는 나라. 만약 이 엄청난 잠재력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 진다면, 그리고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아찔한 일이다.

4 일 아침, 김건도 목사님 부부와의 조찬 모임을 끝내고 차를 달려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박수웅 장로님 댁을 방문했다.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조용한 주택이었다. 장로님 부부와는 거의 1 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다. 캐나다로 출국하기 3 시간 전에 이루어진 만남이라 대화 시간은 1 시간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장로님이 작년 JAMA 대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간증을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비행기를 하루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켈거리에서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비행장에 마중 나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이야기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비밀의 신비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JAMA 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의 약자로 '복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이라고 칭한다. 이 대회는 작년 6 월 29 일부터 7 월 4 일까지 덴버에 있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열렸는데, 미국에 사는 한국인 2 세 젊은이들(Korean-American) 2,500 여 명이 모여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미국을 고쳐주소서'였고 영적.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 결사적인 간구를 드린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총체적 질병으로 고통 받는 미국을 치유할 수 있고, 기도만이 미국에 초자연적인 영적 회복과 대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달린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무디와 윌필드의 부흥 운동, 그리고 SVM(학생 자원 운동) 이후 150 년 동안 잠잠했던 미국 부흥의 불길에 코리안-아메리칸들에 의해 다시 점화된 것이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를 비롯한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 대회를 지켜보면서 '이 땅의 온 민족들 가운데 그 어떤 민족도 병들고 타락한 미국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위해 부름 받고 합심해서 기도한 일은 없었다'며 '코리안-아메리칸들이야말로 미국과 세계를 깨우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제 2 의 청교도'라고 입을 모았다.

첫 날부터 터져 나온 회개에 이어 찬양과 간증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풀타임 복음 사역자로 일생을 드리기로 헌신한 자가 150 명, 일생 동안 주께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헌신자가 1,500 명이 나오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놀라운 사실은 주 앞에 헌신된 이들이 앞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예술, 기술 등 모든 분야의 주류(Main Stream) 속에 들어가 제 2 의 퓨리탄으로서 영적.도덕적 부흥을 통하여 위대한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Role Model(師表)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과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국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비전을 세우고 장기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들어갔다.

앞으로 헌신적이고 성령 충만한 한국인 2 세들 중에 정치 지도자, 재벌 총수, 장관, 주지사, 시장, 상.하의원, 대학 총장, 대법원 판사,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예술가 등이 배출되어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핵심 세력(Changing Agent)이 되기를 위해 담대히 기도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세계 복음화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20 명으로 구성된 5,000 그룹, 10 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Tent-Maker)를 파송하는 대대적인 전략에 착수하고 있다.

JAMA 의 특성은 일회성이 아닌 영속성에 있다. JAMA 의 지도자들은 행사보다는 후속 프로그램과 집중적인 양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 행사에 이어 금년 2 월 필라델피아에서는 전문 직업인 400 여 명이 모인 JAMA Professional Conference 가 열려 지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재현한 바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주도한 분들이 평신도라는 데 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특히 JAMA 준비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춘근 교수님(현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은 코리안-아메리칸의 위대한 사명을 깨달은 후, 뜨거운 마음으로 미국을 심장에 넣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42 일 동안 미국 전역을 자동차로 돌아다니며 설명회 및 조직위원회 결성을 성사시켰다.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며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대역사의 출발점을 만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산 냄새, 풀 냄새, 소똥·말똥 냄새를 맡으며 어떤 때는 벼락이 내리고 천둥치는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했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운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장기간 운전으로 등에 욱창이 나서 14 일간 열이 나며 쉬시기도 했고, 그것이 야구공만하게 부풀어 올라 굶기도 했다. 결국 시카고에서 수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코리안-아메리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도 크고 엄청나서 흥분 속에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젊은이들과 Sharing 하느라고 아픔도 기꺼이 잊을 수 있었다."

어찌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코리안-아메리칸들에 의해 제 2 의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제 1 의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미국을 조국으로 삼은 코리안-아메리칸들이 이제 또 다른 이민 족속, 또 한 부류의 미국 시민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 2 의 청교도로, 제 2 의 개척 시대로, 제 2 의 프론티어십으로 미국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히 외치자! 미 대륙은 우리의 것이다. 미국을 새롭게 하자. 미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무후무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자. 우리 모두 복음으로 무장된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미국을 정복하자. 우리에게 의해 미국이 정령당하는 통쾌한 꿈을 꾸자. 그리하여 세계의 한복판에 다시 한번 영적 폭풍이 부는 제 2 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자. 진리에 의해 정결케 되고 성령에 의해 뜨거워진 미국의 거대한 영향력에 의해 세계가 다시 복음으로 불붙게 하자. JAMA 지도자 중 한 분인 황 사무엘 변호사가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였다고 한다. 서울대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잔디밭에서 모여 잡담하며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는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은 '야, 이놈들아! 어찌 너희가 시시한 무인도에 불과한 독도에 얽매어 있을 수 있느냐. 독도는 일본에게 쥐 버려라. 그 대신 미국을 먹어라. 미국을 정복하라. 미국은 주인 없는 땅인데 미국을 정복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우리 젊은이의 비전 없음을 한탄했다고 한다.

어찌 대상이 미국뿐이겠는가. 온 세계가 다 주인 없는 땅이다. 내가 가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중국, 러시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케냐,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등 모두가 다 주인 없는 땅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크리스천을 보신다.

세계의 중심은 세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나라든 그 땅의 주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땅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뜨거운 비전의 사람이 없는 곳은 어디나 주인 없는 곳이다. 사실 온 세계를 다녀보아도 주인이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할 일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할 일 많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자. 정복할 땅을 많이 남겨두신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자. 스코틀랜드의 주인은 존 낙스였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결사적인 기도를 하며 일생을 걸고 그 땅을 청교도 국가로 변화시켰다.

이제 선교라는 진부한 개념보다는 '경영'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자. 요셉과 다니엘은 오직 믿음 안에서 혈혈단신으로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복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적 도전으로 세상을 소란케 했고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조용한가. 경제적 모티베이션에 의해 상품과 기술과 인력으로 세계에 진출하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총체적 복음과 통합적 성경 진리와 바른 영성으로 세계를 공략하고 세계를 경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수백만의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에 의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뉴 아메리칸 드림과 성경적 월드 비전을 꽃피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풍요와 안정 속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인물이 없고 사표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인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이렇게 외쳤다. "젊은이여 작은 꿈을 버려라!"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몰입하기 마련이다.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자아의 토치카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민족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며 적당히 세월을 보낼 수 있겠는가. 어찌 자기 스스로 설정한 삶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자신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지상 명제를 외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적 월드 비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가라, 진리의 사람들이여! 주인 없는 세계를 향해! 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성경적 월드 비전을 향해!